

21세기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비전과 발전과제

이수철* · 이재식**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Vision and Developmental Tasks for Korea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Soo Chul Lee* · Chae Shik Le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have accomplished a significant role in self-sufficiency of rice, a national staple food, through green revolution in 1970's; supplying green vegetables even during the winter season through white revolution in 1980's; and establishing technical agriculture by organizing rural leaders and 4-H members.

In 1990s changes were made in international situations under the Uruguay Round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nd inaugur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is was followed by localization of the extension staffs and the functions of extension services in Korea changed dramatically from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Thus, a weakened national function resulted in loosening of the linkages of research and extension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xtension offices. Difficulties were reported in diffusion of new agricultural technology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tension personnel.

Developmental tasks for better extension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in Korea would include recovering national functions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developing a new paradigm for extension service. Thi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measures; 1)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should be adapted to involve national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 The target groups for extension servic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farmers, rural residents as well as urban consumers. 3) The role of the extension service should cover agricultural technological diffusion of innovations as well as managerial skills and leadership development for rural organizations. 4) Extension services should be introduced to small farmers as well as consultation services for advanced farmers. Diversified approaches should be employed for more effective services. 5) Pre-service as well as in-service education should be offered to secure better extension educators equipped with knowledge, understanding and abilities on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agricultural philosophy, instructional methods and communication skills.

I. 문제의 제기

□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은

○ '70년대 녹색혁명, '80년대 비닐재배기법의

백색혁명을 성취하였고

- 농촌지도자, 4H 등 조직육성으로 새기술 수용 기반을 구축하여 기술농업을 구현하였으며
- 70여개의 개발도상국에 한국농업기술의 공여와 협력으로 큰 성과를 이룩하였음

지도기능 부 문	○ 절대 국민식량자급이란 국가적 명제에 전념해온 결과 사업부문간, 지식·정보, 경쟁력 분야 등 균형개발지도가 요구
지도체계 부 문	○ 지방농촌지도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체계의 굴절과 행정업무 수행 등으로 교육적 전문지도기능의 발휘가 점차 미약
사업수행 부 문	○ 일부지도사가 전통적인 지도사업의 범주를 탈피하지 못하고 지도방법의 전환과 지도과제의 개발 및 추진전략이 미흡
전문지도 능력부문	○ 지식·정보화, 경쟁력, 수출 분야 등에 대응한 지도원의 지도능력·전문화가 미흡하고 사기마저 침체의 지속화

□ 그러나 아직 일부 농촌지도기관에서는

- 국민 경제의 향상, 수입개방, WTO, GR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력이 미흡하고
- 지방화 조류에 의한 지방 농촌지도기관에 근무하는 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와 「지도+산업행정」의 통합 등으로 「관료적 지도행정」이 태동하여 고유의 「교육적 전문지도기능」의 말살이 우려되고 있음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가. 농촌지도의 발생배경과 본질

(1) 농촌지도의 발생배경

- 일반시민에게 대학교육을 공개한 시민교육 (사회교육적 필요)
 - 특권 부유층에 국한된 대학교육의 확장
 -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육혁신 운동 (Extension Education)
 - 대학이 농민의 영농문제 해결 시도
 - 미국 코넬대학의 농민교육 활동 (Extension Service)
 - 교수가 순회하면서 농사지식이나 새 기술

을 보급

- 국가가 농업부문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 (국가정책적 필요)
 - 제2차 세계대전후 제3세계 국가에서 식량증산의 필요성을 인식
 - 행정독려식 지도기능의 한계 극복을 위한 「교육적 지도」가 긴요

(2) 농촌지도의 본질

- 새로운 전문기술과 지식·정보의 신속한 전달 보급과
- 농촌인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일종의 「사회교육 기능」

※ 농촌지도의 고객들이 자신의 영농이나 생활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을 제공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자문하고 교육하는 재반 활동

- ※ 일방적 지시가 아닌 쌍방향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
 - 민주적, 교육적, 균형적, 협동적 특성

나. 농촌지도사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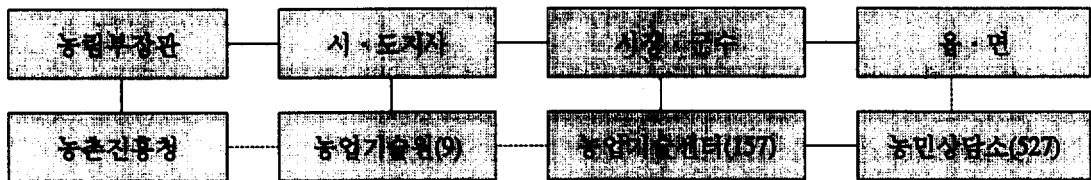
(1) 지도기구의 변천과정

국립농사개량원 (1947. 12~194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식 농촌지도사업 체계 도입 ○ 인력, 예산 등 여건불비로 성과 없이 개편
농업기술원 (1949. 1~195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수립후 농과대학은 교육부로 이관 ○ 6·25 동란으로 사업 전개 부실
중앙농업기술원 (1956. 3~195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기구를 행정과 통합
농사원 (1957. 6~196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기구를 행정과 분리, 국가체제로 일원화 ○ 상향식 교육적 지도활동 전개
농촌진흥청 (1962. 4~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교도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통합 ○ 지방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외청기관화

(2) 주요기능 (농촌진흥법 제2조)

-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보급
-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종자 종축의 보급
- 농업인 조직 및 농촌후계인력의 육성
- 지역농업개발과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 공무원 직무교육 및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조직체계



- 1957년 농사원 발족시에는 국가체제로 일원화되었으나 '1962년 농촌진흥청으로 개편시 지방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기관으로 설치
- 1997년 1월 1일자로 지방에 근무하는 지도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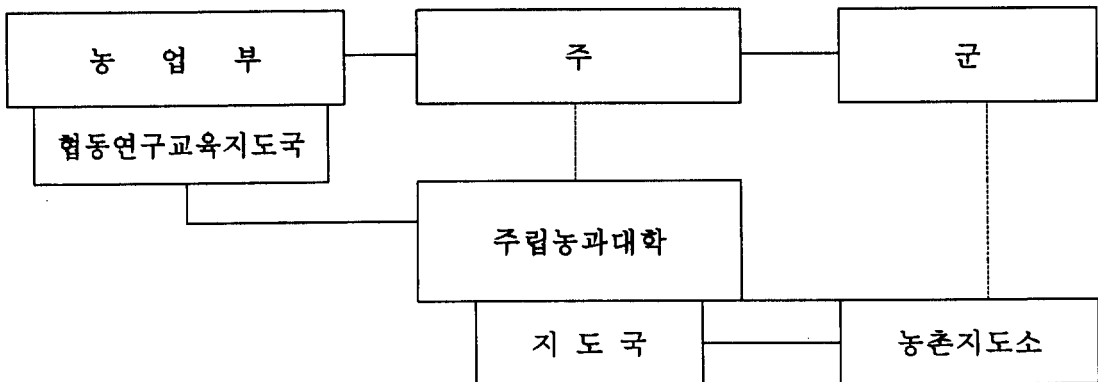
(4) 지도인력 : 5,153명

구 분	계	중 앙	지 방		
			소 계	도	시 군
계	5,153	71	5,082	234	4,848
국가직	89	71	18	18	-
지방직	5,064	-	5,064	216	4,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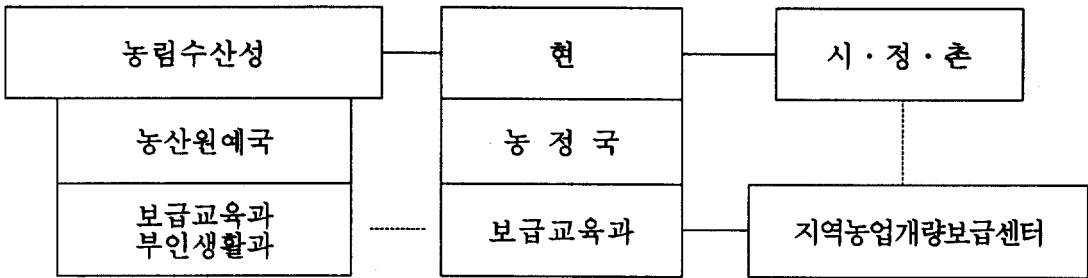
※ 외국의 농촌지도체계

대학외연 교육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 기능이 먼저 발전된 일부 선진국 유형 예) 미국, 스위스 등 ○ 농촌발전을 위한 사회교육적 기능이 강조
정 부 조 직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의 식량자급, 농촌개발 목적에서 출발 예) 일본, 태국 등 ○ 농림부 하부조직형과 외청 조직형으로 구분
농민조직 기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태동 예) 덴마크, 프랑스 등 ○ 농민조직이 전문지도원을 채용하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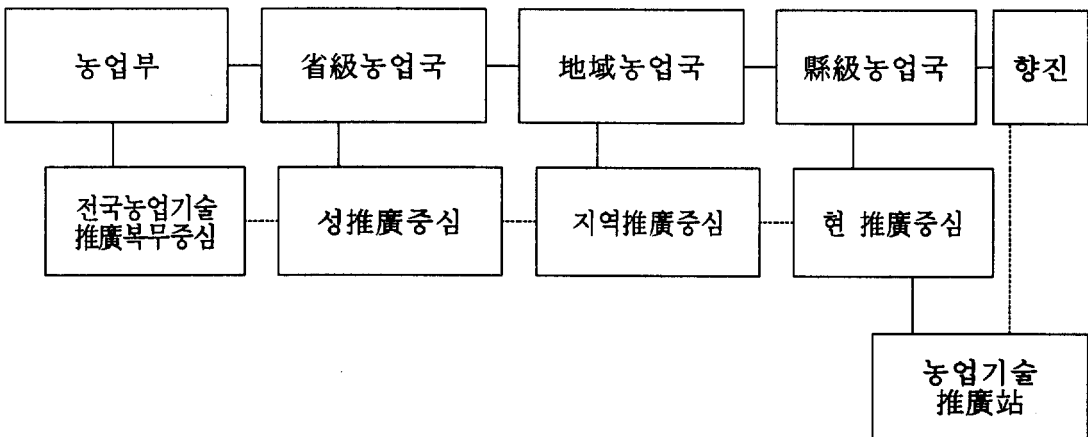
미 국 - 대학외연(外延)교육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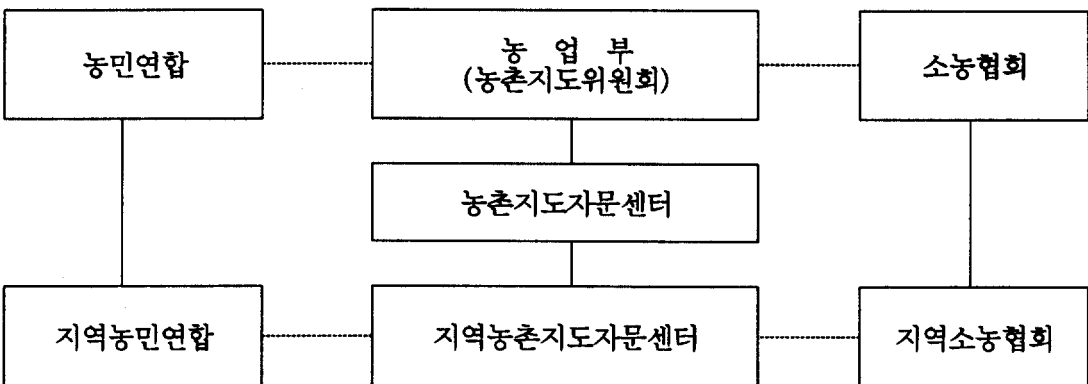
일본 - 정부조직형



중국 - 정부조직형



덴마크 - 농민조직기구형



〈 지자체 역사가 깊은 외국 지도체계의 특징 〉

- ① 일선(시군) 농촌지도기구는 모두 행정과 분리하여 운영
 - 지시, 규제, 통제 등의 일반행정 기능과 명확히 구분하여 지도사업의 교육적, 민주적 전문성 발휘 보장
- ② 시험연구기능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조직 운영
- ③ 지도사업을 국가기능으로 분류하고, 시행상 지방정부 및 농민조직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에 운영

※ 한국 농촌지도체계에 대한 국제적 평가

- 한국은 연구와 지도가 결합된 효과적인 조직체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5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스페인, 한국) 중의 하나 (FAO, 1982)
-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생산과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 (아세아농과대학연합회, 1986)

다. 농촌지도체계상의 문제와 여론

(1) 현행 농촌지도체계상의 문제

- 지방직 전환후 지방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단이 미약함
 - 농촌진흥청 출범 당시부터 지도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이었으나 신분은 국가적으로 인사권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있었음
 - 지방직 전환이후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이후로 지방의 지도사업을 조정할 만한 수단이 거의 없음
- 구조조정후 일부 농산행정과 통합, 흡수, 폐지 등으로 지도기구의 정체성이 없어짐
 - 농정업무가 농촌지도기관에 통합, 지도업무가 행정에 이관, 지도기관의 폐쇄 혹은 미설치된 시군에는 관료적 지도행정화와 지도기능의 공백이 점차 표출되고 있으며
 - 농업인을 직접 만나야 하는 지도업무 수행

이 소홀하여 지도기구로서의 기능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2) 현행 지도체계상의 여론

- 농림부 : 지방직 전환이후 업무자료 등을 요청해도 지방에서 잘 응하지 않고 업무협력 추진에 비협조적임
- 농촌진흥청 : 인사권의 이양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가 대부분인데도 지방을 통제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음
- 농업기술원 : 시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협조가 종전과 같지 않고 비협조적이며,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으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농업기술센터 : 지방직 전환이후 일선 시군청의 행정적 요구사항이 증가하였고, 농촌진흥기관 업무는 그대로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으며, 구조조정으로 인원마저 감축되어 획기적인 체계 개선이 요구됨

2. 제기되는 문제점

- 식량자급, 환경보전농업 등 국가기능으로서 수행해야 할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제약
 - 국가 주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과의 연결고리 약화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제한

- 중앙과 지방의 사업추진 방향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업 추진내용이 변질되는 사례 발생
- 중앙의 연구·지도사업과 일선의 지도사업과의 연계성이 약화되어 농업인이 필요한 전문기술지원에 제한
 - 중앙 시험연구기관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신속한 농가보급이 곤란
 - 영농의 현장에서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장애로기술의 중앙 시험연구사업에 반영이 미흡
- 지방자치단체간 농촌지도사업 발전의 불균형 초래
 - 시장·군수의 관심정도에 따라 지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위상이 달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가 상이함
 - 자치단체간에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으로 상호 기술정보의 교환이 전무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이 있어 지도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
 - 구조조정으로 지도인력의 대폭 감축되었고, 결원 보충이 전혀 없음
 - 기술직의 전문성을 고려한 지도인력의 상호 교류가 제한되고 최저 승진 소요년수 미만자 임용 등으로 사기가 저상

업생산성의 향상

- 농업인의 고학력화로 기술농업과 지식산업의 실현 촉진
- 주변국가의 풍부한 수출시장으로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 이에 따른 우리의 농촌지도사업은

- 고품질 농업의 실현과 농산물 수출전문기술지원 체계의 확립
- 고학력 농업인을 지도할 지도공무원의 전문화 촉진
- 현장애로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할 전문 농업인의 능력 개발
- 도시의 소비자를 포함한 농촌주민을 전체를 지도대상으로 확대

2.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지도주체 : 국가·지자체 → 국가·지자체 + 민간조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농협, 민간연구소, 농업관련회사 등에서도 지도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주체의 전문화·다양화 도모
- 지도대상 : 농업인 → 농업인 + 농촌주민 + 소비자
 - 농업인 위주의 지도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의 소비자도 농촌지도대상의 범주에 포함
- 지도내용 : 기술이전 → 기술이전 + 기술개발 + 농촌조직육성
 - 농업기술만 이전하는 단계에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농민조직의 육성 및 현장애로기술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역할까지 담당
- 지도방법 : 농민상담 → 농민상담 + 다양한

Ⅲ. 21C 농촌지도사업의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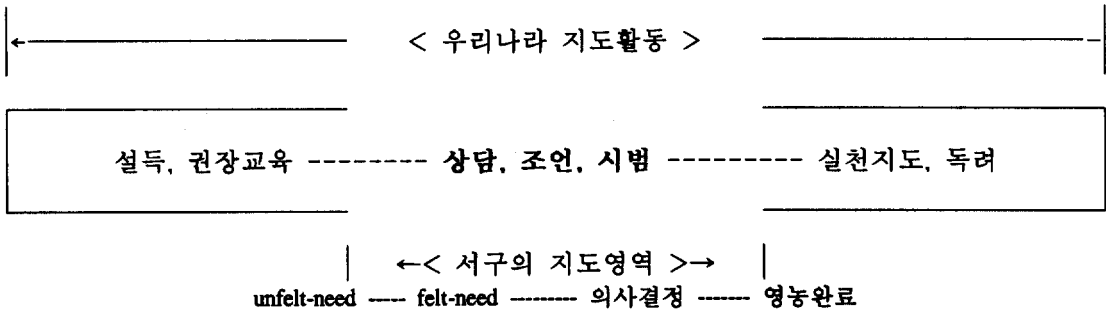
1. 농촌지도사업의 전망과 비전

- 21C 우리 나라 농업은
 -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고품질 농업」의 실현이 가능
 - 유전공학기술 등을 광범위하게 응용하여 농

농민지도기법

- 농민상담·교육 위주로 이루어진 농촌지도 방법에 농민이 원하는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접근기법을 활용
- 지도원 전문능력 : 농업기술 → 농업기술·정보 + 농업철학 + 지도기법
- 영농문제 진단 해결위주의 지도에서 농민의 아픔을 청취하고 농민으로 부터 배우기도 하고 효율적 의사전달, 과학적 원칙하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촌지도활동의 영역



- 우리나라 농촌지도활동-농업인의 지식·기술수준이 낮고 자율영농 실천의 여건의 지도 활동 (Agr. Guidance Work)

3. 농촌지도사업의 발전과제

가. 농촌지도기능의 재확립

- (1) 현대 선진국가의 기능
- 국익관리기능 — 국익에 관련된 「특수산업, 특수지역, 특수계층」의 전략적 육성 : 국가경제적 기능으로서의 농촌지도사업
- 균형개발기능 —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낙후산업, 낙후지역, 소외계층」의 육성 지원 : 사회교육·복지증진으로서의 농촌지도사업

(3) 농촌지도사업의 기능 재정립

- 경제적 지도기능 정립
 - 양질의 국민식품생산 공급에 필요한 전문 기술 지원 주도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 경영합리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의 개발 지원
 -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과 도시민과의 농업연대활동 전개

○ 사회교육·복지분야 지도기능 정립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제약된 농업인, 청소년, 부녀자, 귀농자, 노령자 등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도농간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 산업화와 도농간 연대성 제고에 따른 농업인 실생활 적용교육
- 농업·농촌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개발지도에 역점

나. 지방화에 상응하는 지도사업으로 대전환

(1) 전환의 기본방향

-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지식기반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 -

구분	현행	개선전환
지도대상	○ 전 농가	→ 계층별 선별지도 [영농기술 : 전업농가 중점 농외소득기술 : 귀농, 영세농 협력·협조 : 소비자, 도시민
지도분야	○ 농업	→ 농업 + 농외소득원 + 농촌사회개발
기술	○ 모든 작목	→ 비교우위작목 + 기간작목 + 친환경분야
	○ 증산기술	→ 품질의 향상 + 생력화비용 절감기술
소득 지도체계 과제의역점	○ 생산기술	→ 생산전문기술 + 가공유통 일관기술 + 농외취업기능기술
	○ 개별농가기술	→ 지역농업 문제해결기술
	○ 자연자원이용	→ 모든 농촌자원의 소득화 기술
	○ 농업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향상 기술
	○ 농업위주체계	→ 농업 + 농업인 + 농촌사회종합전문 기술체계
	○ 중앙지정특화시범	→ 지방수요 특성화사업, 수출농업, 친환경농업

(2) 농촌지도의 역점과제

(가) 영농현장 중심의 기술·정보 지원체계 강화

- 영농실태조사
- 대상별 지도방법의 적정화
- 기술경영 Consulting
- Cyber 정보지원
- 한자리 종합상담

□ 기술·정보 수요 분석을 위한 영농실태 조사

영농여건,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밀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기술·정보 요구 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 기초조사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지역별로 적정농가 할당 전직원 분담 조사
- 조사내용 : 경지이용, 농업생산, 유통, 기술 수준 등

□ 시군 전략작목 정밀조사

- 시기 : 시군 자율
- 조사방법 : 전략작목 경영농가 전수 조사 또는 표본조사
- 조사내용 : 경영형태, 기술수준, 기술지도 요망 사항 등

□ 조사표 작성 : 중앙에서 기본(안) 작성, 기관별로 보완 활용

② 대상별 지도방법의 적정화

농촌지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도대상
에 따른 적절한 지도전략 및 방법을 선택하
여 농촌지도사업의 효율화 도모

- 전업농·특수작목 경영 농업인 - 필요한 기
술·정보의 자율습득능력 보유
 - 최신 기술·정보자료의 사이버 중심 제공
 - 특수작목 기술·정보자료 수집 제공 및 관
련기관·단체 연계
 - 협력지도자로 육성 활용
- 품목별 조직 농업인 - 주 지도전략으로 채택,
효율성 제고
 - 연구모임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활동 조장
지원
 - 회원 또는 타조직간 벤치마킹, 품목별 전
문교육
 - 자가 경영진단 및 그룹컨설팅 지도
- 개별 일반농업인 - 자율적 지도방법 활용, 신
기술 보급
 - 농업인 요구에 의한 상담 및 현장순회지도
 - 시범사업, 선진지 견학, 집합교육 등
- 농업인 관련 조직체 - 우리편 만들기로 협력
기반 확대
 - 대상단체 : 학습단체, 농업경영인회, 농민
회, 유기농단체 등
 - 단체 및 회원가정 방문, 회합주선 등을 통
한 친분관계 유지
 - 정기간행물 및 농업기술·정보 자료제공
 -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청 및
각종 자문위원 위촉 활용

③ 기술·경영 Consulting 지도체계 강화

- 농업의 전문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컨설
팅 수요의 증대
- 그간 “알림장터” 등의 컨설팅을 하고 있으
나 외부의 인식이 낮고 체계적 추진 미흡
- 농업인 서비스 향상과 전문지도 강화를
위해 컨설팅 강화 필요

- 기관단위 전문컨설팅팀 구성과 운영의 효
율화
 - 【 중앙단위 전문컨설팅 】
 - 기술지원국과 농업경영관실 컨설팅 기능
의 특성화
 - 농업기술알림장터, 중앙컨설팅트, 수출품
목전담팀,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을 통합 운
영
 - 일선기관의 요청, 전국공통 중요과제, 긴
급상황 발생시 기술 지원
 - 【 도단위 광역컨설팅 】
 - 지역실정에 맞게 연구·지도전문가, 유관
기관, 대학교수 등으로 팀 구성
 - 광역 컨설팅 대상품목 및 농가를 선정하여
월 1회 정기컨설팅 전개
 - 시군에서 해결이 어려운 영농과제 발생시
수시 그룹컨설팅 지원
 - 【 시군단위 기초컨설팅 】
 - 품목 및 경영담당지도사, 농·축협, 지역
농대, 농고교사 등으로 팀 구성
 - 전략품목 관련 시범사업 대상 농가 또는
단지 중심의 컨설팅 수행
 - 품목별농업인 연구회원 농가를 기초컨설
팅 시범농가로 지정 운영

□ 중앙, 도, 시군단위별 컨설턴트 리스트작성
배부 활용

□ 컨설턴트 관리 : 지도기획 - 조직총괄, 작목
담당 - 조직운영

④ 사이버 기술·정보 지원 확대

- 인터넷과 전자메일을 통한 품목별 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
- 농촌지도분야 관련 고객과 쌍방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 전자 Mailing System 운영

○ 추진주체 : 품목별 전문지도사 (중앙~시군)

※ 운영사례 : 『화훼 21Aflos』(21세기 Agricultural Flower Star)

○ 대 상 : E-mail이 가능한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교수 등

○ 정보교류내용 : 최신 기술, 가격동향, 애로 기술, 현안과제 등

○ 운영방법

- 중앙, 도, 시군의 품목별 담당자별 「1 : 100 목표관리」

- 1일 1건 메일보내기 (Mail 구성 : hwp 파일 + Comment)

- 여론수렴을 위한 Monitoring 병행 운영

• 농업·농촌여론을 수시로 수집하여 농정 및 지도사업에 반영

• 정기적으로 송수신결과에 대한 회의개최 : 자료의 공유, 문제해결

□ Cyber영농 체험농장 운영

○ 농업인, 학생, 귀농자 및 네티즌에게 영농에 대한 간접체험 확대

○ 가상공간에서 영농을 체험하여 실제영농에 활용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영농체험 사이트」 개설 운영

○ 우선 필수품목 위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점차 확대

□ Cyber 기술보급 활동 강화

○ 기존 인터넷 신문 「rdanews」 기술정보 게재 기능 확대

○ 농업기술 정보자원의 DB화 전담팀 구성 본격 추진

⑤ 한자리 종합상담 체계 확립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상담하면 어떤 일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자리 종합상담 체계 확립

□ 상담과제 - 농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

○ 즉시해결 과제 : 영농·경영기술, 가격정보 등 지도기관과 관련된 내용

○ 안 내 과 제 : 병역, 건강, 세무, 교육, 자금융자 등 지도기관과 관련은 없으나 농업인이 원하는 모든 과제

※ 유관기관·단체의 과제별 관련부서 안내

□ 추진체계

○ 각급 지도기관별로 「종합영농상담 5959」 운영

- 영농상황실과 병행 상시운영 체계 확립

• 주간 - 전담 상담요원 지정 운영

• 야간 - 중앙 : 전담 근무자 지정, 지방 : 당직과 병행 운영

- 「무엇이든 도와 드립니다」입간판 설치 및 매체 활용 홍보

○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운영

-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농업인이 직접 원격

대면이 필요한 기술 상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즉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중앙과 지역의 전문가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수강사 발굴·관리
- 상담결과의 활용
 - 정기적으로 상담결과중 중요사항을 종합하여 정리 활용
 - 자주 질문하는 내용은 종합하여 FAQ 별도 책자 발간

(나)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시범사업 추진

- 핵심기술 시범사업
- 명품화 시범단지 육성
- 친환경 농업기술의 정착
- 정밀영농지도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Ⅰ 새기술·정보 실증효과가 높은 시범사업 추진

- 시설기자재 투입에 의한 사업 치증으로 생산, 유통 등 종합적인 지도가 소홀하여 일부사업의 성과 저조
- 시범 기술·정보의 경제성 및 난이도 등 실효성 분석에 따른 사업선정 필요

- 첨단 신기술투입과 소득이 연계되는 시범사업 선정
 - 연구개발자, 지도공무원, 농업인 등의 합동심사
- 시범농가는 생산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기술·경영컨설팅을 통해 성공모델로 육성
- 기술은 충분한 검증과 실증을 거쳐 투입하고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

여 인근농가에 기술 전수와 확산

- 시범사업 농가에 대한 3년간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발전도 및 성과 측정

② 지역전략 작목 명품화 시범단지 육성

- 지방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 브랜드 품목의 집중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개발 요구 증가
-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된 지역간 차별화된 전략품목의 집중 육성

- 지역간 차별화된 1시군 1명품화 소득증대 시범단지 육성
 - 2001년부터 매년 10개소 시범 육성, 연차별 확대추진
 - 지역으로 부터의 사업계획 수립과 중앙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
 - 개소당 10억원 (국비 + 지방비 보조)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모델 육성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확대
-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 높은 지역농업 집중육성
 - 틈새 시장을 겨냥한 기능성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
 - 잠상물질, 고급버섯, 특수채소, 산채류, 허브류 등
 -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특산품의 집중 개발
 - 정선 쥐눈이콩 가공상품, 제주 손바닥선인장 가공상품 등
 - 지역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관리
 - ※ 현행 추진하는 지역특성화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③ 친환경 농업기술의 조기정착 지도

- 21세기 GR 본격추진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농업은 한계 봉착
- 선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환경기준을 어긴 무역상품 교역 금지
- 금후 농업은 농산물 생산 뿐만 아니라 공기오염 등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농업기술의 조기정착 필요

- 천적 및 성페로몬 활용 등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 보급 확대
- 작물양분종합관리(INM) 기술의 실용화
-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개발 보급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운동의 확산
- 퇴비증산을 통한 지력증진 및 농토보전 운동 전개
- 친환경 농업 실천의지 함양을 위한 농업인 교육 확대

④ 최적 농자재 투입에 의한 정밀영농(Precision farming) 지도

- 수확량 및 품질에 영향을 주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각종 농자재 및 재배기술을 적기에 적량 투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 토양종합검정실과 병해충진단실을 「지역정밀농업지원센터」로 기능보완 운영
 -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적정 시비 실천
 - 병해충 정밀예찰 및 조기진단을 통한 병해충 발생정보제공
 - 토양 및 작황의 실시간 분석에 따른 최적 기술정보 제공
- 토양정보 웹서비스 정보제공 연차별 확대 추진
 - (2000말까지) 11 → (2001~2003) 58 →

(2004~2005) 88개 시군

- 작물별 시비량 및 토양관리방법 등 정보를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가에 직접 제공
- 인터넷을 활용한 토양정보 웹서비스 시범군 운영(2000) : 진천군
- 정밀농업을 위한 토양환경정보 구축 시범마을 육성(2000) : 양평 등 4마을

- 현행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한 정밀농업기술 확산
 - 정밀농업 실천을 위한 시범요인 설정
 - 토양환경 종합개선시범(146),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19) 등 3종 195개소
 - ※ 정밀농업 준비태세 구축, 실용화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보급 확대
- 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범사업의 개발 육성

- 테마가 있는 전통마을 육성
 - 사라져가는 농촌의 전통지식 및 생활풍습을 발굴 소득 자원화
 - 지역 농특산물의 명물·명품화로 매력있는 고향마을 조성
 - 사업량 : 350개소, 2001~2007년 까지 매년 50개소 지원
 - ※ 가급적 타부처 소관사업과 연계한 사업 투입
 - 지역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이미지 마을 육성

- 평창 감자떡마을, 합천 돛자리마을, 제천 약초마을, 영양 짚공예마을

- 토종 농산물, 향토음식 등 우리 먹거리 생산·제조체험 및 판매
- 전통지식 보유 농촌노인을 활용한 세시풍속 및 마을풍속 학습, 문화유적지 탐방, 자연관찰 프로그램 개발

□ 오지 Package 전원시범마을 육성

- 오지·도서·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 생활개선사업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의 질 향상
- 사업계획 : 2,250마을 육성을 목표로 연차별(2001~2005) 확대
- 사업내용 : 피로회복실, 컴퓨터실, 식품가공실, 노인실, 전통문화실, 목욕실, 마을공동 휴식공원 등 종합 문화복지시설 설치

□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 농가주거환경의 개선발전 지향과제
 - 『부엌, 목욕실, 화장실 개량』+『농가부속사,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 사업량 : 3,000농가
- 농가재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 1,380개소 (읍면당 1개소)
- 농작업환경개선 및 피로회복을 위한 시설 및 도구 지원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활용 지원 : 404 → 1,425개소
 -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 개발 보급 : 20종 100개소

□ 여성농업인 소득사업 발굴 확대

-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 85 → 105개소

(다) 농업인의 지식사회 자율 대응능력 함양 지원

-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 주문식교육 실시
-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 농업인 정보화 기술 향상

① 농업인의 자율탐구활동 증진을 위한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 지식사회에 걸맞는 자율적인 전문능력개발 노력의 증진
- 농업인 조직을 통한 기술보급의 효율성 제고

□ 동일품목 경영인 중심의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육성

- 자율 연구활동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조직 : 시군별 10개회 내외
- 전문지도연구회원이 해당 시군 연구모임 책임육성 (1·1운동)
- 농업인 스스로 활동계획을 수립·실천하는 자기주도학습(SDL) 시범
- 조직생활을 통한 새 기술·정보의 공유와 품목별 협력활동 증진

□ 중점 지원사항

- 전문지도연구회와 연계한 컨설팅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공동연찬
- 품목별 조직 농업인 중심의 연중 상설 전문교육
- 각종 시범 및 시책사업 우선 투입 : 기술선도 벤처농업 지원 등
- 고객 DB 구축으로 원하는 최적정보 정선 및 적시 제공
 - Mailing List 및 Easy FAX 활용

②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문식교육 실시

- 전업화와 소득원의 다양화에 따른 세부 전문교육과정 운영 필요
-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경영 일부과정에 대한 단기 집중교육 희망

□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요구분석과 경영능력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설정

- 대면교육이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단기 집중교육
- 교육협의회 운영, 모니터제도 등을 통한 농업인의 교육추진과정 참여
- 교육신청제 정착 및 유관기관·단체의 교육 자원 활용 확대

③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 중점 추진사항
 - 육아, 가족관리, 건강, 가정경제 등 가정경영에 관한 생활기술 함양
 - 영농참여 확대에 따른 품목별 경영능력 향상
 - 각종 모임참여, 부업 및 농외 소득분야 취업 등 사회활동에 필요한 소양의 확충
- 추진방법
 - 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단체 활동 지원
 - 생활기술교육 및 농촌여성 수준에 맞는 영농기술교육 병행 실시
 - 정보화기술, 조직생활 및 지도력 배양, 농산물 가공 상품화, 농외소득 기술 등에 관한 교육 및 연찬, 사례연구, 현장견학 등

④ 농업인 정보화 기술 향상 지원

- 농업기술정보 이용 전산교육장 설치
 - 전문농업인들이 전산망을 활용한 정보검색능력 배양
 - 2001년 도농업기술원내 전산교육장 설치 지원 : 9개소
-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운영
 - 농촌청소년들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을 통한 유능한 후계인력 양성
 -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내 학습단체 사

무실에 전산장비 설치 운영
- (2000) 78 → (2001) 166개소

- 농촌청소년들의 정보처리 교육 및 상담체계 유지

□ 여성농업인 창업 정보화 지원

-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과 농촌 여성 일감맞기 사업장의 경영관리 전산화 : (2000) 314 → (2001) 1,099개소

⑤ 농업인 공동체 의식과 새농심 갖기 운동 전개

- 학습단체 중심으로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분수를 지키는 새농심갖기 운동」 전개 - 자주, 자립, 협동하는 농업공동체 의식 함양
- 학습단체가 선도 실천하고 각종 농업인 교육 및 행사시 의식교육 병행 실시

(라) 농업기술·정보의 총체적 국가 지원역량 증대

- 기술·정보 활용체계 구축
- 중앙·지방 연계 강화
-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 국가 농업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 기술·정보자원의 DB화 및 자료 제작 활용
 - 농업관련 연구 및 교육훈련기관과 관계 전문인력을 DB화하여 「RDA 홈페이지」에 서 제공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요자들을 위하여 인쇄물 발간 배부
- 정보화 자료 활용 방법 안내
 - 기관별 기능,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수룩하고 활용방법 제시

- 농업인 상담 및 컨설팅에 관련자료 활용

② 중앙·지방농촌진흥기관간 지도기능의 연계 강화

-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기관간 기능의 특성화 및 연계 강화

【 중앙 】

- 연구 개발된 기술정보를 고객 수요에 맞도록 적정화하고, 산재한 단편적 기술을 품목 및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지원
- 품목별·분야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전문인력의 지원
- 지방 농촌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국가차원의 지도과제와 지역특화 시범을 위한 과제의 예산지원

【 지방 】

- 자체 애로기술 개발과 중앙 기술·정보자료의 현장화
- 생산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정보의 보급지원
- 새로운 기술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연구개발에 반영

- 정보교류 및 대화의 장 상설화

- 사업계획 및 평가 등 정기 업무협의회 개최 : 연 2회
- 중앙단위 교육 및 지방출장시 중앙사업 설명과 정보제공으로 상호 신뢰감 조성 및 공감대 확산
- 기관간, 관련부서 및 전문인력간 「사이버 대화광장」 운영

③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증진

- 기술·정보지원 협의체 운영

- 단위별 산학협동심의회 중심의 협의체 재 정비 : 8월까지
- 기관별 기능분담 및 상호 협력방안 협의 시행
- 농협, 농과계학교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기관과는 개별 협약체결

- 농촌진흥기관의 기술·정보 지원기능 특성화

- 주요 품목 중심의 검증된 기술·정보 지원
- 지역별 특화품목에 대한 정밀한 영농진단과 처방, 농장관리, 전산정보자료 활용 등 실용적이고 심도있는 기술보급 지원

-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기술지원

- 영농 및 생활개선분야의 표준 기술·정보 자료 제공
- 유관기관·단체요원 대상 교육훈련 지원

(마)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도농연대교육
- 유관단체모임 정례화
- 농촌진흥기관 상시 개방
- Cyber 홍보실 운영

① 도농연대 교육 확대

-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촌과 도시를 상보적 공생관계로 정착
- 농산물 생산현장 교육으로 소비자의 불신풍조 해소

□ 추진계획

- 청소년, 소비자, 농업학습단체회원 등 6,000명을 대상으로 추진
- 한국4H후원회, 농촌지도사회,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실시

② 단위별 생산·소비자단체 모임의 정례화

- 매년 2~3월중 농업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장을 초청하는 정례행사로 추진
- 중앙은 정례행사로 추진하고 지방은 지역실정을 맞게 추진

③ 농촌지도기관 개방체제 운영

농촌진흥기관 시설 및 포장을 정기적으로 개방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추진계획

- 전국 농촌지도기관을 실정에 맞게 개방토록 권장
- 농업의 이해와 학생들의 자연학습 및 정서함양의 교육장화
 - 안내 표찰설치 및 안내자 지정 운영
- 농촌진흥사업의 위상제고와 농업의 국민적 관심 증대

④ Cyber 홍보실 운영

늘어나는 네티즌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여론지도자에 대한 농업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함

- 인터넷신문 내용의 내실화 및 다양화
 - 현행 텍스트 위주에서 시각 자료화
- 인터넷 방송 「RDA-TV」 개설, 홍보자료의

디지털화

- 기존 보도매체와 연계 유기적 활용
- 농업인 학습단체를 통한 이벤트행사와 연계한 홍보

(바) 농촌지도조직의 전문지도태세 강화

- 기술정보 전산화
- 센터 평가체계 확립
- 지도공무원 처우개선
- 연구개발 역량 강화

① 기술·정보 관리의 자동·전산화

수집된 기술·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활용도 제고

□ 기구축된 DB자료의 개선과 Update

- 영농종합상황DB : 농작물 생육상황, 병해충예찰정보, 농작업 관리일정
- 기술보급자료DB : 농업시설표준 설계도, 내고장 새기술 개발과제, 농업인 교육훈련 및 교육생 관리시스템
- 농촌생활개선 종합정보 DB : 생활기술, 농촌여성 생산제품 소개 등

□ 기술·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지속 개발

- 농촌지도사업 전용 사이트 구축 운영
 - 품목별 전문지도 연구회, 영농종합상황실 등 운영의 내실화
 - 농촌지도사업 관련 기술·정보 우선 제공 및 토론의 장 활용
- 농촌지도사업 현황 및 보고자료의 전산망 이용 확대

② 농업기술센터 평가체계 확립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농진청 관계관 및 농촌지도사업 전문가로 구성
-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적용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방법 설정
- 사업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
-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적용지침 작성 등

□ 평가방법 및 추후 조치

- 전국농업기술센터의 연간 사업추진실적 평가
- 농업인 및 내부 사업수행자의 만족도 제고와 사기진작 방안 강구
- 우수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
- 기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는 벤치마킹을 실시·보완

③ 지도공무원 처우개선 지속 추진

□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호봉 개선

□ 필수실무요원 적용

- 지도관대우로 8년이상 재직하고 지도관 승진을 포기한자 5급대우

□ 대우공무원 대상기간 단축

- 지도사로서 15년 이상 → 지도사로서 10년 이상

□ 도농업기술원 담당급 직급 격상

- 지방연구·지도사 → 5급상당 지방연구·지도관

④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과 관리자의 지도력 증진

- 농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확고한 직업의식 정립
- 지역전략작목 등에 대한 전문지도 역량 함양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방안

-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통한 자율능력 향상 : 44개회, 2,400명
 - 실용기술 연찬 및 정보교류 촉진
 - 농업인연구모임과 합동연찬을 통한 시너지효과 거양 : 연 2회
- 1지도사 1자격증 및 전문학위 취득 권장
- 지도인력의 능력수준에 따른 단계별 전문심화교육 체계 정립
 - 초급지도인력 : 식량작물, 원예 등 분야별 통합교육과정 운영
 - 중견지도인력 : 벼, 감자, 한우 등 품목별 전문과정 운영
 - 선도지도인력 : 시험·연구 영농현장 과제별 집중 탐구학습 및 연찬
- 기관별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 : 연구발표, 전문지 투고 등

□ 관리자 기관운영 관리능력 함양

- 지도력 함양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연찬 기회 확대
 - 지도기관 관리자 대상 정규 전문교육과정 운영
- 관리자 자율 연구모임 운영
 - 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연구회」 육성
 - 경영관리능력 함양 연구 및 수범사례 공유
- 경영관리에 관한 기술·정보 자료 및 수범사례 수집 분산
 - 관리자 지식경영 자료집 등 2종 발간

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 농업인들은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은 물론 당면한 기술상의 문제점을 가까이에서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 지역농업인의 필요 기술 및 국지적인 애로기술 개발과 현장의 보급활동이 조화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필요함

- 지도공무원의 전문교육에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교과 편성 운영
- 지도공무원의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활동 확대
- 지역 농업실증포 운영 및 농업인개발과제의 참여 확대
- 지역특화작목시험장과 연계로 전략작목에 대한 개발 강화
 - 사례 : 「정선 쥐눈이콩」 이용 상품화, 「구례 야생화」 이용 향수개발 등

⑥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 기능의 집중화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 품목 개발과 지도인력 감축에 대처할 전문분야별 기능 집중방안 필요

- 농업기술센터별 관장업무의 집중화와 (예 : 10개 전략작목 설정 등) 지도사별 담당업무의 전문화
- 브랜드품목을 담당하는 팀 인력보강(예 : 더덕팀, 사과팀 등)
 -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브랜드가 가능한 품목
 -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고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품목
 - 느타리버섯(포천), 더덕(황성), 사과(충주), 장미(김해), 토마토(부여) 등
- 시군농업기술센터간 인력활용 협약체결 운영
 - 시군간 미흡한 전문지도인력의 상호보완